



요한은 예수님께 왜 침례를 받고 싶으신 건지 여쭙어 보았어요.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다고 대답하셨지요.

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어요. 요한과 예수님은 성신을 느꼈어요. 그리고 “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.”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어요.

